

평창으로 간 작가 공지영

“할머니 등 업혀 손 흔들던 아기 초등생 돼 평창 올림픽 봤으면...”



평창 올림픽유치위원회의 홍보대사인 작가 공지영 씨가 15일 평창에서 IOC 조사위원회의 실사 현장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평창=번선구 기자

2014 겨울올림픽 조사위원단이 도착하던 날, 강원도에는 함박눈이 내렸다. 유난히 눈이 적었던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내린 눈이었다. 북해 폐기를 골자로 하는 6차회담이 타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다. 이어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하늘에는 모든 구름이 걷혔고, 맑고 쨍한 강원도의 추위가 온 땅에 내렸다. 몇 년 동안 가을 같으며 조사위원단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실로 하늘이 내린 행운의 징조를 곁였다. 더워지는 지구의 기후 때문에 겨울스포츠는 점점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눈이 많아야 하는 기후와 추위는 겨울올림픽 개최의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조사위원단과 함께 한 15일 아침, 평창은 깨끗한 웃음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처럼 아름답고 정갈했다. 하늘빛은 A4 용지를 던지면 푸르게 물이 들어 버릴 것 처럼 맑았고,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흰 눈은 순결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 위로 싱싱한 초록 솔밭이 이어지고 있었다. 부끄럼질만 우리나라, 그것도 강원도

산골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나는 처음 알게 됐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늘어놓은 비환경적인 기후를 좀 정비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 중계돼도 손색없는 풍경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거리에 늘어선 환영 인파였다. 나같이 군사특재 시절 김포 기도에 동원된 적이 있는 사람에게 그 첫인상은 솔직히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골목길마다 길 보퉁이를 돌아 갈 때마다 나와 있는 인파 앞에서 생강의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이상하게 눈물도 났었다. 푸대접도 아닌 무대접을 오래도록 받아 온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거기서 보였기 때문이다. 이름 없던 산골사모가 그랬고, 릴레야메르가 그랬고, 솔트레이크시티가 그랬듯이 겨울올림픽을 평창에서 유치하게 되면 이제 강원도 평창은 세계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예 하늘에서 때뒤편 눈이 내렸는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바라보기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푸른 하늘이 왜 이때를 맞춰 펼쳐졌는지, 솔밭들은 왜 더 허리를 굽히며 피고 싱싱해졌는지 알 것 같았다.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하던 우주가 그를 도와준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서울 올림픽이 서울만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평창 올림픽 개최 역시 평창만의 일이 아닌 것은 당연할 터. 중방 활강 경기장 예정지에서 할머니의 등에 업힌 채 국기를 흔들던 아기는 2014년에는 초등학생이 돼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자라 세계인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고향은 겨울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이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게도 간절해졌다. 또한 성실한 연습을 거쳐 올림픽에 오신 선수들을 통해 세계 유일의 적대적 분단국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세계인들에게도 간절해진다면 산이 많이 고되고 분단돼 쪼갠 강원도도 그렇듯 좋은 선물을 못 없지 않을까. (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 홍보대사)

날씨 2월16일(금) 음력 12월 29일-후디. 밤하늘 고요고요. 중부 지방은 맑고 밤에 구름, 제주도과 전남-남서해안 지방은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0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 지역별 날씨 (기온은 최저/최고), 비는 확률 (%), 세계의 날씨 (16일) 등 날씨 정보.

길 찾기 사인, 방향·정보 쉽게 알려줘야.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26). 잘 읽히는 도시, 길 찾기 사인부터... 도시에겐 가로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길의 주요 위치에는 공공시설 및 가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사인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는 가로사인 1) 체계가 취약해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길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 5번가 등은 우리 귀에 익숙한 가로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뉴욕을 찾지 않고서도 거리 이름을 통해 뉴욕의 명소를 떠올립니다. 뉴욕의 유도사인 2)는 질서정연한 도로망을 토대로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와 교차지점마다 정확한 가로명과 방향을 알려 주는 사인이 있어 보행자-운전자 모두 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집니다. 정교한 사인 시스템으로 교통-우편 등의 공공서비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문화지구-상업지구 등 구역별로 사인디

7년연속 세계판매 1위. 세계의 바람 WHISEN. 이미지: 김은혜

분홍 막걸리는 어떤 맛일까. 검은쌀로 개발 -포도주와 비스. “흑미(黑米)로 빚은 분홍색 막걸리를 보았어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세양주조는 14일 막걸리는 우수빛이라는 고경관편을 깨고 분홍색 막걸리를 개발해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는 문백면사무소에서 ‘문백 특수미작목회’ 농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분홍색 막걸리의 개발은 ‘문백 특수미작목회’의 한 농민이 세양주조에 흑미를 이용한 술 제조 아이디어를 내 이루어졌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특산물인 흑미를 이용해 전통술을 만들면 상품성이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세양주조는 흑미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영양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포도보다 5~8배가 더 함유돼 있어 포도주보다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다고 판

국방장관님, 육군총장님 허위보고 받고 있어요!!!. 그 군인아저씨는 지금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저씨는 07. 2. 14일 국방일보에 저희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장애가 된다 했습니다. - 의혹제기된 내용은 모두 확인되었고 관련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감사기관에 공개예정입니다. 그 아저씨는 사업을 공정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 거짓말입니다. 성병 미달된 특정업체의 훈련장비 개발품에 대해서 군요구도를 변경 하려다 저희 반발로 못했습니다. 증거 자료 공개 하였습니다. 육군 법규도 위반 했습니다. 그 아저씨인지는 몰라도 07년 2월 14일 국방일보에 과학화 훈련에 대한 글도 게재 하였습니다. “실정 상황에서 1달 시적으로 2명이 동시 실장 필수도 있다.” 주장했습니다. 군인 맞습니까? 그럴 확률이 얼마인지 자료 공개 할수 있습니까? 반사피해등은 있으나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군이 쓰고 있는 K1, K2 개인화기훈련 장비는 1발씩 백만 사격하면 200명이 죽어요!” 확률이 100%입니다. 실화 가능성과 다른 훈련장비입니다. 유턴발사기의 곡사탄도구현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어설성 미정된 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가 엉터리라고 음해도 합니다. 국가 공인 기술 연구소 도 있으며, 박사4, 석사9, 학사9, 전문가기술2명 총 42명의 기술연구 인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어서 문제가 된 외국산 성병 미달장비를 모두 국산기술로 개발 완료 했습니다. 아저씨 주장이 모두 맞다면 “공개시연을 방해 하지말고 당당하게 검증받기 바랍니다.” 저희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아저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기술 연구소 연구원 모두 용인공장 직원 그리고 장예우 가족 일동.